

미국 소매판매: 7 월 판매 0.6% 감소, 자동차·온라인 부진이 주도해 방향은 뚜렷하나 구조적 둔화는 판단 유보

2026.08.15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미국 7 월 소매판매는 총액 7,636 억 달러로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이 수치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감소로 확인되며, 방향 자체는 분명하다. 다만 직전 6 월 수치(+0.2%)는 통계적 오차범위 안에 있어 사실상 '보합'으로 봐야 하므로, 정확히 말하면 '2 개월 연속 둔화'가 아니라 보합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유의미한 한 달치 감소로 정리하는 게 맞다. 자동차와 휘발유를 뺀 계열은 -0.2%로, 통계적으로는 거의 보합권에 머물러 있어 기저 재화 수요 자체가 크게 꺾였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숫자 이면을 뜯어보면, 이번 감소의 상당 부분은 온라인·비매장 판매(-2.2%)와 자동차 판매(-1.8%) 두 항목에서 비롯됐다. 자동차는 6 월에 +2.4%로 급증했던 거의 되돌림 성격이 강해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고, 온라인 판매 급감은 프로모션 시점 변화 때문인지 실제 수요 둔화 때문인지 발표문에서 원인을 밝히지 않아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빼도 나머지 계열이 -0.3%로 마이너스인 만큼, 자동차 하나만으로 전체 약세를 설명할 수는 없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도 6.8%에서 5.0%로 1.8%포인트나 급락했는데, 이는 한 달치 감소폭(0.6%포인트)보다 훨씬 커서 기저효과(작년 동월 수치와의 비교 부담)가 상당히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13 개 세부 항목 중 실제로 줄어든 것은 온라인·자동차·휘발유·가전 4 개뿐이고, 외식·의류·잡화·건강용품은 오히려 늘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함의로 보면, 현재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는 3.50~3.75%이고 시장은 9 월 동결(약 61% 확률), 12 월 인상(약 69% 확률)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소매판매 감소가 추가 인상 논리를 약화시키는가를 물었을 때, 답은 '아주 미세하게 누그러뜨리는 정황' 정도이지 논리 자체를 무너뜨릴 수준은 아니다. 이 수치는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명목치라 가격 요인과 실제 소비량 요인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물가 측면 판단은 보류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물가 둔화가 확인됐다'는 식으로 해석을 격상시켜서는 안 된다. 성장 측면에서도 동결 기조를 흔들 만큼 재화 수요가 꺾였다고 보기엔 근거가 한 달치 관측에 그친다.

앞으로는 8 월 소매판매에서 자동차·휘발유 제외 계열이 다시 마이너스로 나오는지, 그리고 온라인 판매 급감의 실제 원인이 확인돼야 이번 감속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가오는 소비자물가·개인소비지출 물가지표로 이번 명목 수치를 실질 기준으로 환산해봐야 실제 소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이번 감소를 '소비자 체력 훼손'으로 단정하지 않고, 감속 신호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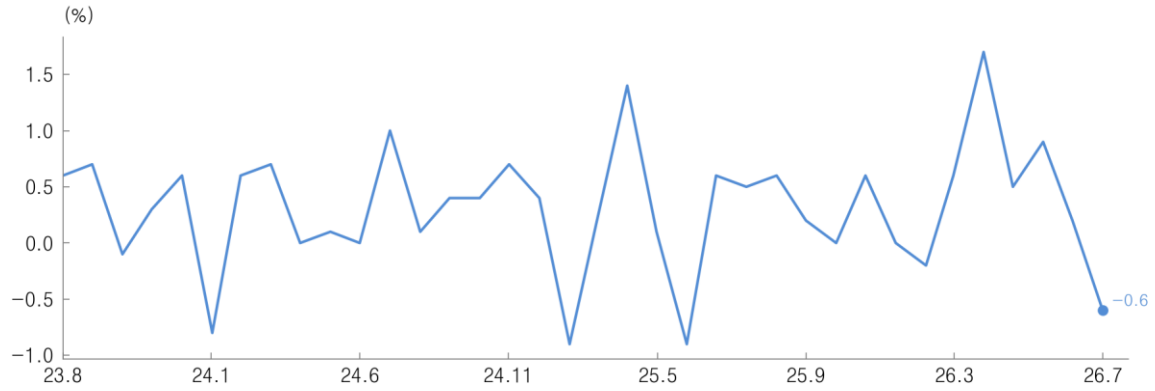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8-14 (이번)	7 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6% 감소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감소를 처음 기록했지만,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한 기저 수요는 사실상 보험권에 머물러 있어 소비 둔화를 확정 짓기보다는 감속 국면 진입을 확인하는 선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6-07-16	6 월 MoM 0.2%로 직전월 수정 1.0% 대비 80bp 급락했으나 절대수준 YoY 6.7%는 견조하며, 주세 악화는 일회성 반동·계절성 혼재로 보이되 글로벌 수요 악화와 주거 자산효과 기저 약화가 누적 중인 신호.
2026-06-17	5 월 소매판매 MoM 0.9% 회복·YoY 6.9% 고성장으로 소비 모멘텀 재확인, 하우스 No-Landing 기조를 뒷받침하나 명목 성장이 크다는 점에서 인플레이 영향 상당 시사.

RETAIL 성장·활동 — 7 월 소매판매 핵심 지표

지표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맥락
총 소매판매	-0.6% (6 월 +0.2%*)	+5.0%	6 월은 신뢰구간에 0 포함돼 사실상 보험, 7 월이 첫 유의미한 감소
자동차·휘발유 제외 계열	-0.2%	-	총계 표준오차 범위 내, 사실상 보험권
자동차 제외 전체 계열	-0.3%	-	자동차 하나만으로 총계 약세 설명 어려움
자동차·부품 판매	-1.8% (6 월 +2.4%)	+1.9%	6 월 급증분 되돌림 성격, 전년동월비는 전체 평균(5.0%) 하회
전자·가전제품 판매점	-0.5%	-	13 개 세부 항목 중 실제 감소한 4 개 항목 중 하나
건축자재·원예용품점	+0.3%	-	자동차·휘발유 제외 계열에 포함되는 증가 항목
건강·개인용품점	+0.7%	-	세부 항목별 증감이 엇갈리는 가운데 증가세 유지
5~7 월 3 개월 합산	-	+6.3%	단월 변동성을 줄인 분기 기준, 신뢰구간 ±0.5%p 로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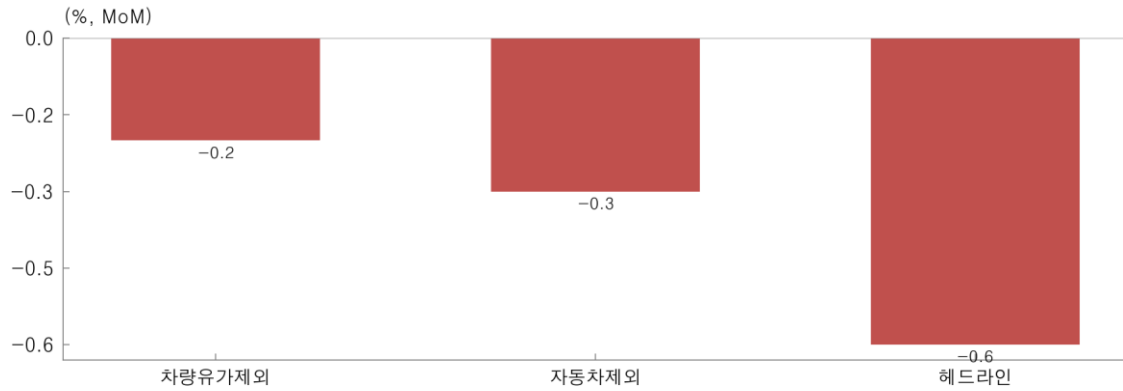
핵심 수치	
지표	값
전월대비(%)	0.6
소매판매(\$B)	763.6

미국 소매판매(전월비) 3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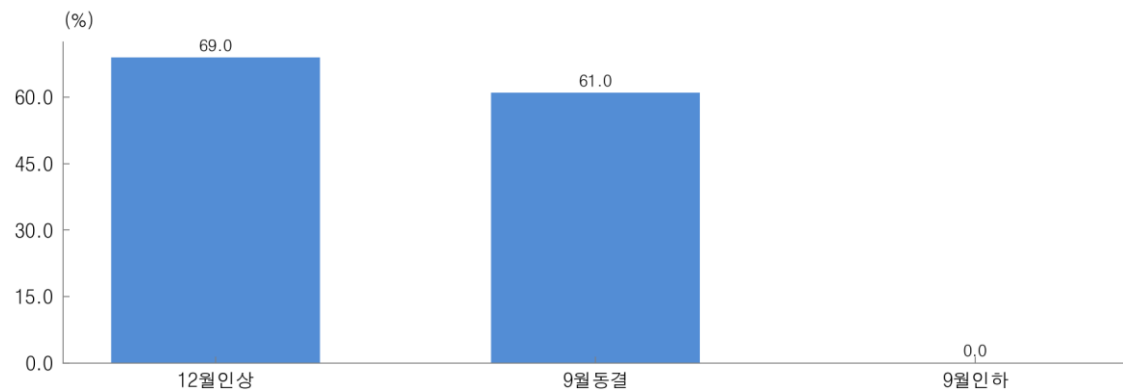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7 월 소매판매 제외 기준별 전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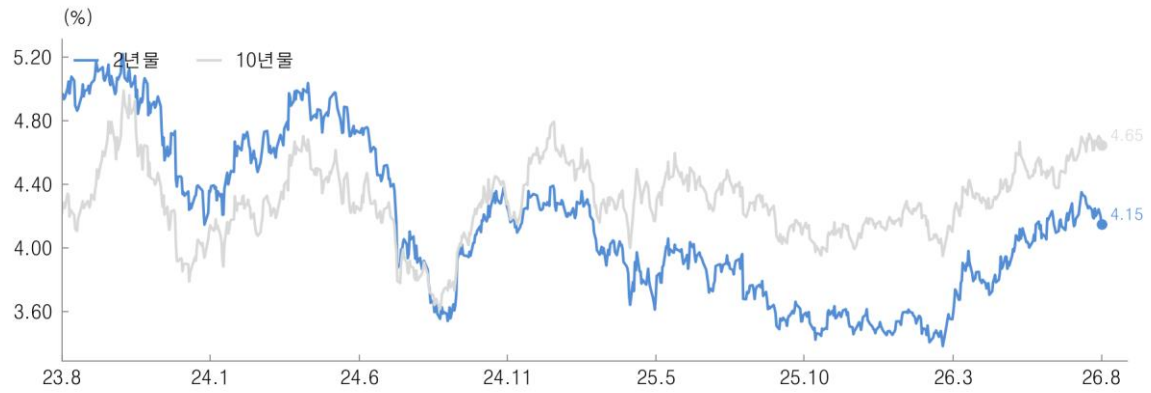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연준 회의별 시장 반영 확률(선물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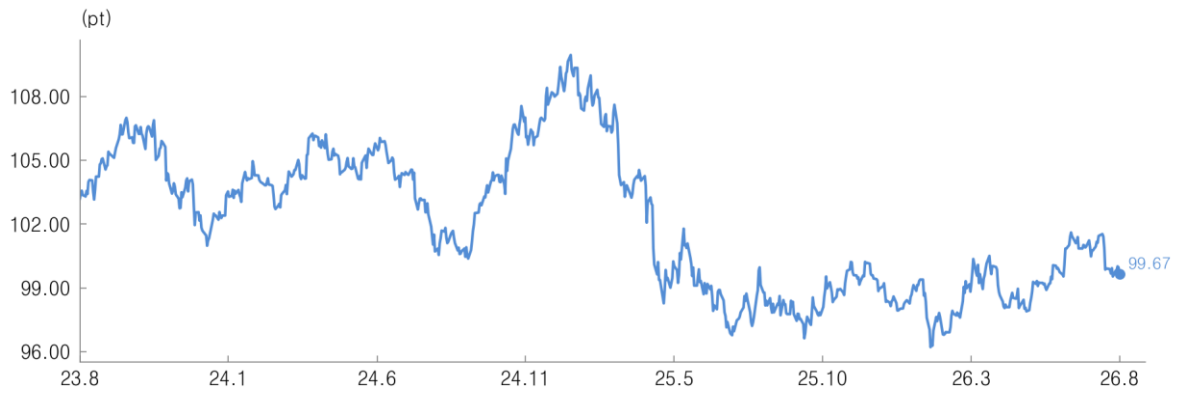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금리 (2년·10년)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지수(DXY)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